2003년 12월 15일

동아시아포럼 창립총회 기조연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동아시아포럼' 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신 각국 지도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특히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대중 전 대통령, 마하티르 전 말레이시아 총리, 하타 전 일본 총리, 보 반 키엣 전 베트남 총리, 옹 켕 용 ASEAN 사무총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3개국 정부와 민간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여 동아시아의 평화, 번영, 진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이 포럼의 의미는 아주 큽니다. 여러분은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공동번영 구축, 무역과 투자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역내 협력의 초석이 될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지난 10월 'ASEAN + 한 · 중 · 일 정상회의' 에 참석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각국 지도자들의 비전과 협력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아시아가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ASEAN+한·중·일' 체제가 그 견인차가 되어 왔습니다. 정상회의와 분야별 각료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 구체적인 협력의 틀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동남아와 동북아라는 오랜 지리적 구분을 뛰어넘게 했습니다. 넓은 지역과 서로 다른 문화, 그리고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를 다양성의 조화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와 같은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습니다. 동아시아 비전그룹과 연구그룹의 구성을 제안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발전을 위한 협력조치들을 마련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이번 포럼의 창설도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동아시아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의 세계에는 세계화와 지역협력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흐름 또한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경제·사회적 통합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SEAN은 지난 10월 '발리 콘코드 투(Bali Concord Ⅱ)'를 채택했습니다. 한·중·일 3국은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ASEAN과 한·중·일 사이에도 FTA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아시아 전체의 개방과 협력의 질서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동북아와 동남아를 아우르는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앞당겨 나가야 합니다.

첫째, 역내 국가간 개발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역내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개발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되면 지역통합에 보다 우호적인 기반이 조성될 것입니다.

둘째, 협력체제를 한층 제도화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의 느슨한 ASEAN+한·중·일 체제를 동아시아의 단단한 지역협력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

니다.

셋째, 역내 안보위협을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지속적인 번영은 안정과 평화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북핵 문제와 테러를 비롯한 안보위협에 함께 대처하는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연구그룹' 이 제시한 26개의 협력사항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여러분이 우려하는 북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 6자 회담 관련 국가들 사이에 활발한 접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회담의 개최와 보다 진전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당장의 안보위협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항구적인 평화정착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아가 역내 안보문제를 다자협력을 통해 풀어 가는 새로운 모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통해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동아시아 공동체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 이루기 어렵습니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와 민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 포럼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정부가 하기 어려운 일, 민간이 하기에는 벅찬 과제들을 함께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라 했습니다. 이번 총회가 동아시아포럼의 성공을 향한 힘찬 출발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포럼의 창립을 위해 애써 주신 여러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동아시아포럼의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